

제 2장 네덜란드의 역사적 배경

켈트족과 게르만족이 살던 네덜란드에 로마인이 들어와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BC 50년 경이다. 남쪽의 마스트리흐트(Maastricht)에는 아직 로마 시대의 유적이 남아 있다.¹ 로마 지배의 말기에 프랑크인 및 색슨-프리스인들이 들어와 네이메헌(Nijmegen) 등지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이 무렵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8세기에는 카를 대제(Karel de Groot)의 지배를 받았고, 10~13세기에는 상업 중심을 하는 도시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북부를 중심으로 세력을 강화하였다.

14세기에는 부르고뉴 공작의, 15세기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았다. 16세기에 네덜란드는 가톨릭을 앞세운 스페인 필립 2세의 전제정치에 맞서 침묵의 윌리엄(William of the Silent, 사진)공의 리더십 하에 80년간 독립 전쟁(1568-1648)을 치렀다. 객관적 전력으로는 절대 열세였지만 게릴라적 전술에 의해 마침내 1648년 네덜란드는 베스트팔렌 (Westfalen) 조약과 함께 독립을 맞게 되었으며, 독립한 네덜란드 연방 공화국의 정체성은 칼빈주의적 개신교였다.²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6/WilliamOfOrange1580.jpg 이 지도는 1658년 7개의 주로 구성된 네덜란드 공화국의 모습이다.

¹ <http://ko.wikipedia.org/wiki/%EB%84%A4%EB%8D%9C%EB%9E%80%EB%93%9C>, 2013년 1월 30일 5시 16분 검색.

² "네덜란드의 역사"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3n3896b006, 2013년 1월 30일 5시 28분 검색.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네덜란드의 역사에 관해서는 Christoph Driessen, *Geschichte der Niederlande. Von der Seemacht zum Trendland*, Regensburg: Verlag Friedrich Pustet, 2009 참고.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3/Seven_United_Netherlands_Janssonius_1658.jpg

공화국이 성립되자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네덜란드는 활발한 무역을 발판으로 강력한 해상 파워를 가진,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서 그 명성을 떨치며 해외 진출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1602년에 주식회사인 연합 동인도 회사(VOC: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United East India Company)를 설립하여 세계 제일의 무역국으로 발전하였다.³

이 시기에 네덜란드인들은 남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등지에 식민지를, 북미 대륙에도 뉴암스테르담(지금의 뉴욕)을 건설하였다. 오세아니아에 간 상인들은 뉴질랜드를 발견하였고 일본에도 진출하여 나가사키에 무역공간을 마련하여 일본은 '난학(蘭學)'⁴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네덜란드 상인들은 일본이 금지한 기독교 선교를 하지 않고 무역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조선에 최초로 상륙한 서양인 또한 네덜란드인이었다. 먼저 박연(네덜란드명 얀 벨트브레(Jan Weltevree))이 귀화했고 다음에 하멜(Hendrik Hamel) 일행이 있었다.

한편, 이 시대에는 문화적으로도 황금기를 맞이하여, 렘브란트, 페르미어 그리고 프란스 할스 등의 화가와 에라스무스, 스피노자,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도 배출하였다. 당시 네덜란드는 종교적 그리고 사상적으로 관용적인 나라였으며 지금도 관용성(네덜란드어로 Verdraagzaamheid 영어로 tolerance) 또한 네덜란드의 중요한 국민성 중의 하나이다.

그 후 네덜란드를 견제하려는 영국과의 해전에서 두 차례 패하여 세계의 상권을 대영 제국에 빼앗기게 되었으며, 1793년 2월 1일, 프랑스는 네덜란드에 선전포고하였고 1795년에는 나폴레옹 군대에게 항복하게 되어 1810년에는 나폴레옹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815년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프랑스의 점령은 끝이 나고 입헌군주제인 네덜란드 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이 새로이 탄생하였다. 처음에는 가톨릭 국가인 벨기에와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가 합병된 왕국이었으나 1831년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다.

³ http://www.hamel.go.kr/code/menu1/menu01_2.html, 2013년 1월 30일 5시 20분 검색.

⁴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Rangaku> 참조. 여기에는 의학, 물리학, 전자공학, 화학, 광학, 기계공학, 지리학, 생물학, 천문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이것이 일본의 개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는 1차 세계대전까지 중립국으로 남아 있었으며, 2차 세계대전 때도 역시 중립을 지키려 했으나 나치 독일의 침략으로 그 지배하에 들어갔다. 전후 네덜란드는 안정된 정치와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 유럽의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벨지움, 룩셈부르크와 함께 베네룩스 경제 연합을 형성하여 유럽 공동체의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 인도네시아가 종전과 동시에 독립을 선언하자, 네덜란드 군이 이를 탄압하여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으로 이어졌으며, 많은 비난 끝에 국제연합의 중재로 1949년 독립을 승인하였다. 또 하나의 식민지였던 수리남은 1975년에 독립하여 현재는 카리브 해의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와 아루바만이 식민지로 남아 있다.